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요나와 큰 물고기



저자: Edward Hughes

삽화: Jonathan Hay

각색: Mary-Anne S.

번역: Helen Hwa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17 Bible for Children, Inc.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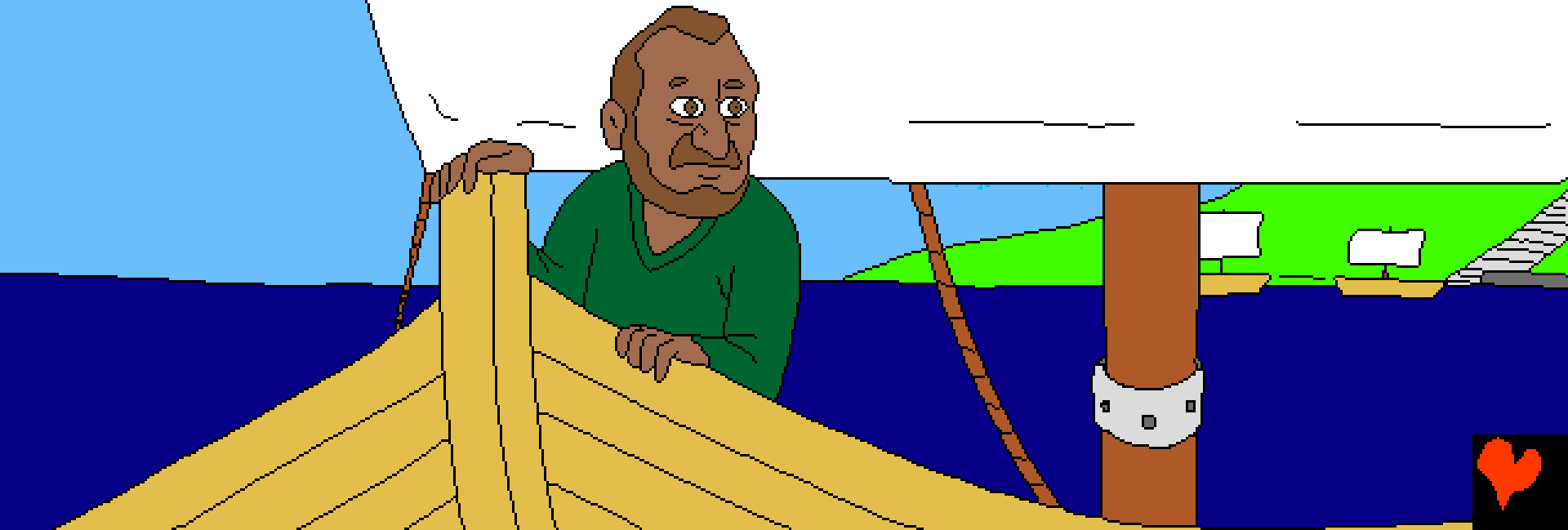
아주 오래 전, 이스라엘에 요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당시 가장 번성한 도시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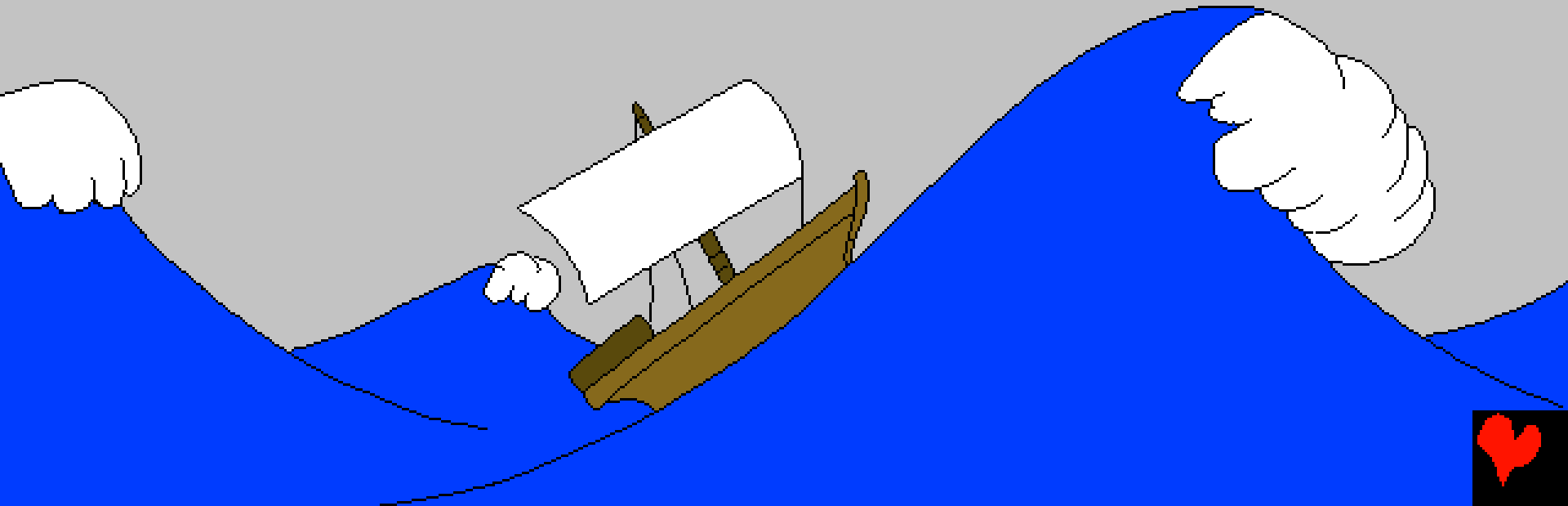
요나의 임무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알고
계심을 경고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요나는 불순종하었어요.
니느웨 대신에 정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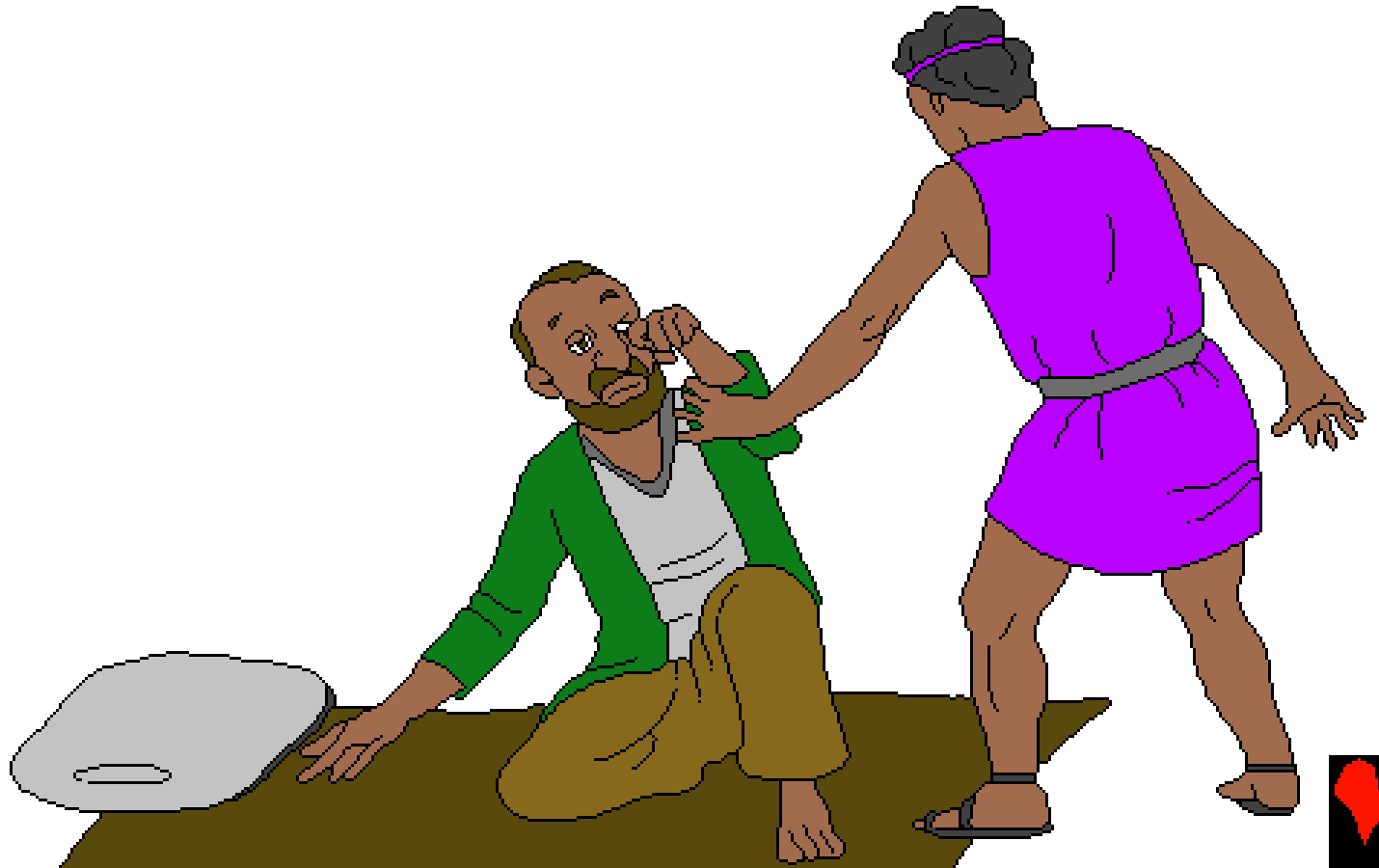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보내어 파도가 거세져서 요나가 탄 배가 부서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폭풍이 점점 더 강하게 불어 치자, 배에 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짐들을 바다로 내던졌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기도하지 않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요나였지요. 그는 배 밑에서 쿨쿨 자고 있었어요. 선장이 요나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이 와중에 잠을 자고 있소?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당신의 신이 우리를 보살펴서 살려주실 지도 모르잖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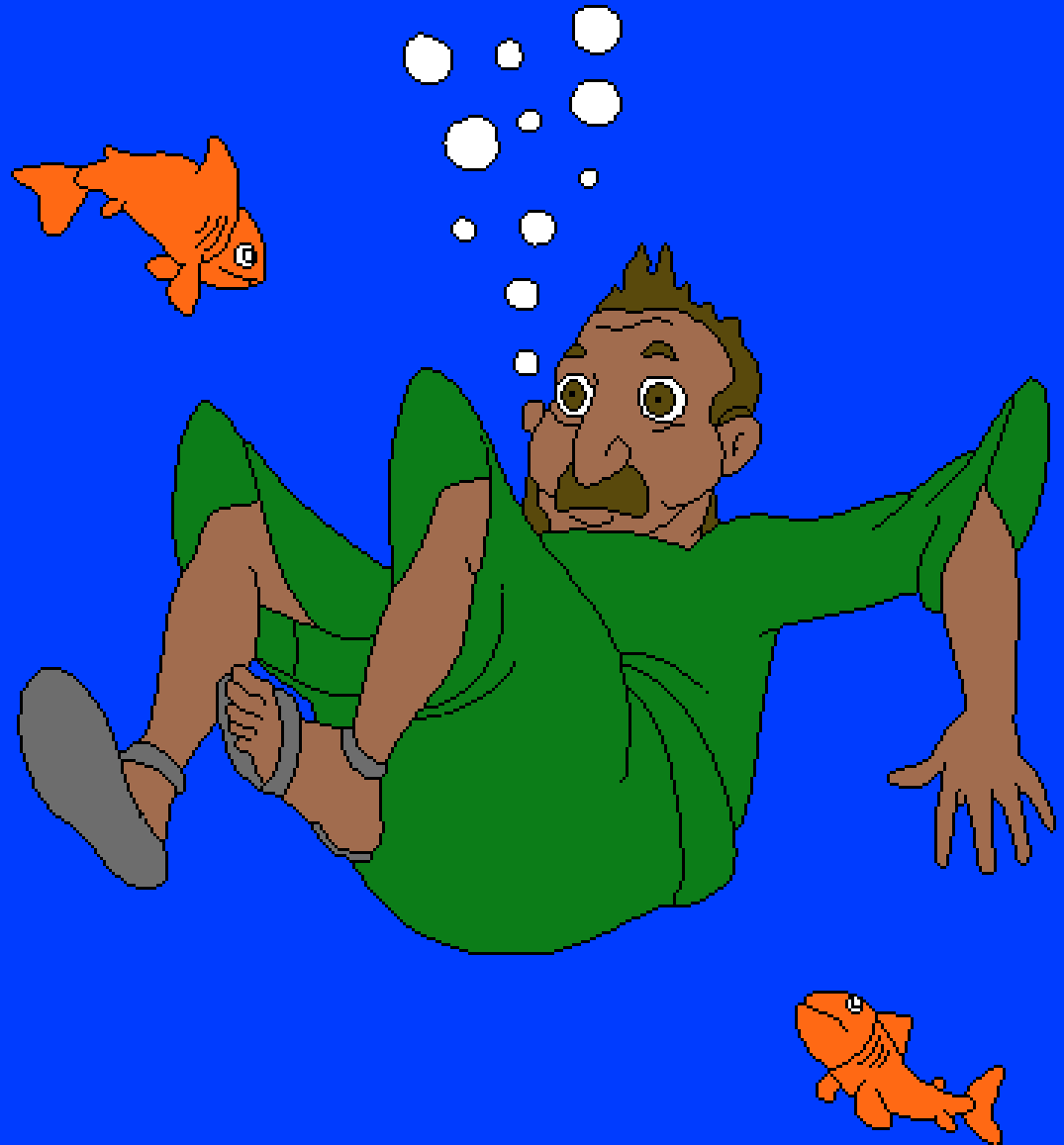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지 쪽으로 저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불가능하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 용서를
구한 후, 요나를
들어 바다로
던졌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며
두려움과 경이로움에
가득 차 주님을
경배하였지요.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진
요나는 죽음 밖에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이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서는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바로 그를
한 입에 꿀꺽 삼키게 하였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삼일을
지내면서 주님께 기도하였어요.



삼일 후, 요나가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해안에 뱉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외쳐라.”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명할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요나의 추측과는 달리,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심지어 왕도 왕좌에서 일어나 베옷을 입고 잣더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악한 행동과 폭력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선포했지요.



하나님께서서는 정말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였고 그 곳은 축제의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는 불만에 넘쳐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주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넘치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당신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항상 용서해 주신다는 것도요.”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요나는 너무 화가 나서 심지어 하나님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어요!” 라고 불평하였지요.



요나는 성 밖에 앉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잎이 큰 나무를 빨리 자라나게 하셔서 그에게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어요. 또한 뜨거운 강풍을 요나를 향해 불게 하셨어요. 요나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 되었고 하나님께 화가 치솟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화를 낼 자격이 있느냐? 너는 네가
심지도 앓았고 가꾸지도 않은, 밤새
자라서 다음날 죽고 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지 앓았느냐?”



“하물며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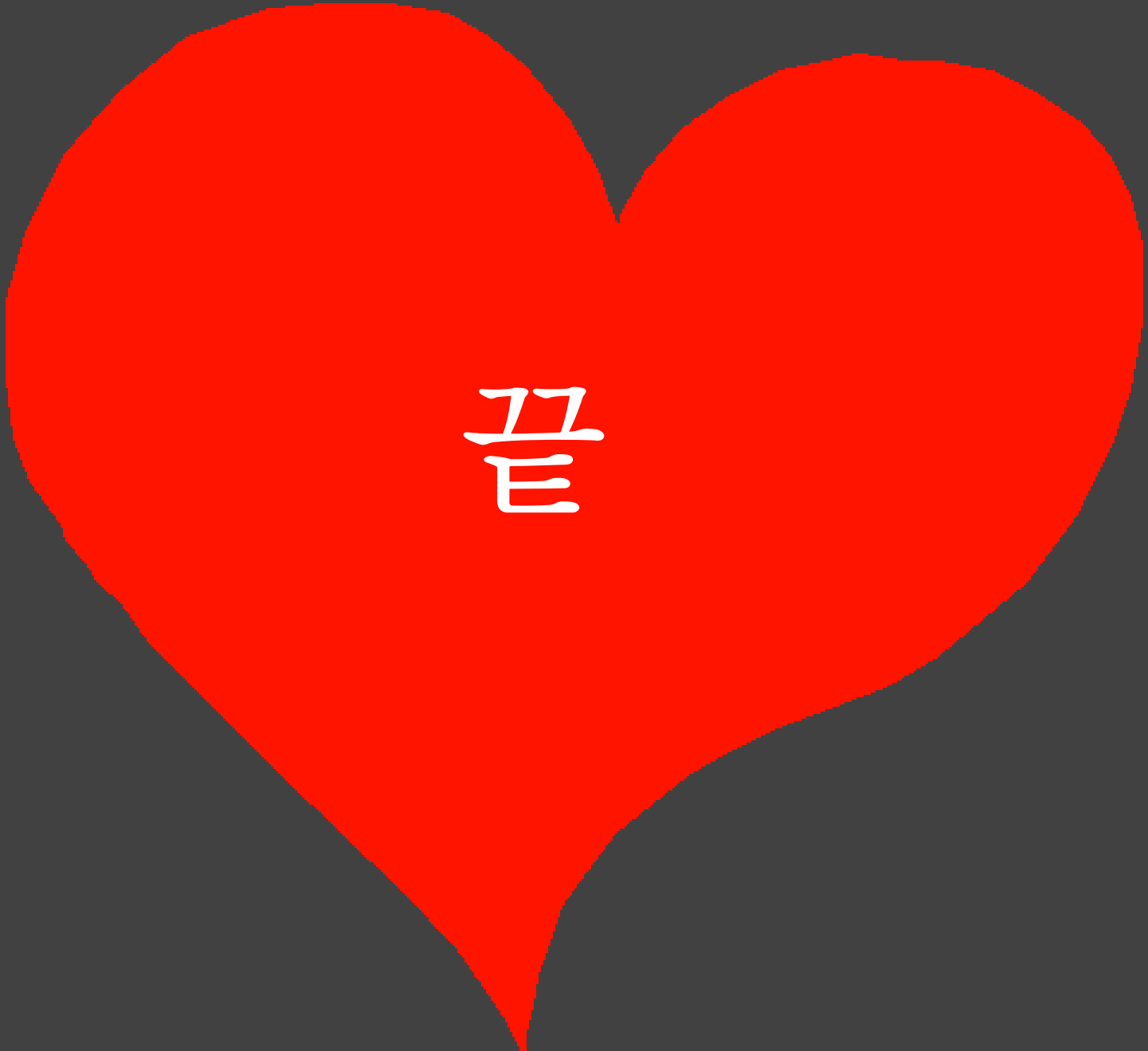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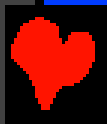
요나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